

더욱 努力하라는 채찍이니

負債償還에 정진하겠다.

振興賞受賞

太平洋化學 理事 丘 聳 燮

本人의 科學技術賞 受賞은 過分하다는 느낌이이다. 왜냐하면 本人은 一化學徒로서 맡은 바 職分에 充實했을 뿐이므로, 훌륭한 先輩와 有功同學에게 榮光이 돌아갔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受賞이 지금까지 微力이나마 精進해 온 본인에게 집어어진 채찍이라면 감사하게 여기는바이다.

筆者는 受賞을 계기로 새삼스럽게 過去를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의 姿勢를 가다듬게 됨을 슬길 수 없다.

×

×

研究한 理論을 製品화한다는 것은 科學徒라던 누구나 갖는 두려움이라. 더구나 筆者가 粧業界에 投身했던 20餘年前의 狀況은 學術的인 면에서나 物質的인 면에서 거의 황무지였다.

化粧品産業은 취약했고, 따라서 化粧品製造도 家内手工業的인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不備한 條件에서의 現實參與(太平洋化學 研究室長就任)는 너무나 무거운 부담이었다. 學究的인 理論의 現實化만이 아니고, 施設의 整備와 體系化가 또한 문제였으니 만큼 當時 나의 業務는 일종의 「전투」에 비유할 수 있었다. 理論의 展開에 沒頭하지 못했다는 말은 변명이 아니고 부닥뜨려진 現實이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長足の 發展이 눈에 띄었다. 나 個人보다 研究팀 共同努力의 結晶이지만, 開發된 製品마다 市場에서 히트였고, 施設 역시 國內最大임은 물론 世界的인 規模로 擴充되어 갔다. 내가 몸 담고 있는 太平洋化學의 成長도 이에 비례하여 國內最初로 海外技術을 交流하고, 國內最初로 化粧品の 海外輸出을 成就했다.

내가 分明히 言及할 수 있는 것은 微力이나마 心血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20餘年前과 本軌道에 오른 現在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또 그동안 化粧品技術者들은 學會를 結成하여

相互技術交流를 꾀하고, 나아가 國際化化粧品協會에도 正會員으로 加入했다. 本人은 國際化化粧品協會의 幹事職을 맡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粧業界의 水準 덕이라고 믿어진다.

本人은 그간 工場長 職에 있었으나 現在는 營業分野를 責任지고 있다.

지금은 더 젊고 패기발랄한 젊은 이들이 研究·精進에 盡力하고 있지만, 一線에서 물러나 있는 나로서는 다음과 같은 壁의 打破를 당부하고 싶다.

첫째는, 아모레化粧品이 國內에서 化粧品の 代名詞가 되었듯이 韓國化粧品이 世界市場을 制覇하는 時期가 빨리 到來하도록 世界情報에 敏感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뜻밖의 受賞에 重責感을 느낄뿐

聯合會長賞受賞

서울대학교 工科大學長 金 熙 喆

이번 科學의 날에 科學技術賞受賞者의 一員에 本人이 뜻밖에 끼게되고 보니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우리 科學技術界에 그동안 이렇다할 業績이나 貢獻도 끼치지 못한 주제에 受賞의 榮譽를 입으니 부끄러운 마음과 同時에 科學技術人의 一員으로 認定된 기쁨과 自慰와 더불어 科學技術界의 發展을 위하여 무엇인가 多少나마 도움이 되어야 하겠다는 重責感으로 어깨가 무거워진다.

科學技術의 位置와 무게가 漸高해가는 此際에 現代科學技術의 傾向과 特徵을 살펴두는 것이 科學技術人의 覺悟와 姿勢를 가다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 이 機會에 暫間 言及코자 한다.

現代科學技術의 特徵으로서 첫째로 科學技術의 革新은 어느 뛰어난 個人의 努力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時代는 지나갔고, 至今은 莫大한 研究費의 國家的·社

會의 支援下에서 豫測되고 定型化한 目標에 여러 專攻分野의 科學者·工學者 및 技術者들의 組織的인 協助과 研究를 통하여 얻어진다는 것이다.

둘째로, 科學的인 發明이나 技術開發이 實際産業面에 反映되어 企業化되고 商品化되기까지의 所要年數가 短縮되어 가고 있다는 點과, 또한 이와 아울러 科學技術의 빠른 成長速度는 商品의 壽命을 短縮시켜, 激甚한 國際市場競争을 誘發하였다는 點이다. 即 例를 들어, 1820年代에 發明된 電動機는 企業化하는데 約 65년이 걸렸고, 1880年代에 發明된 라디오는 企業化에 35年, 1895년에 發明된 X線은 18年이 經過한 1913년에 企業化에 成功하였다. 後 20世紀에 들어와서는 原子爐가 10年, 레이더가 5年, 트랜지스터가 3年, 太陽電池가 2年이란 短期間에 企業化하는데 各各 所要年數로서

×

×

切親했던 후라스코와 各種 試驗器具, 그리고 講壇에서의 20餘年間을 回想하면서 本人은 金번 受賞이 이 分野에서 더욱 努力하라는 戒策으로 생각하고, 이 負債償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할 생각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런지는 本人自身에게 되물어도 의문이고, 두려움만이 앞선다.

受賞者의 感懷라는 글을 쓰라는 부탁을 받고 주제넘은 이야기를 나열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同學, 先後輩의 많은 助言과 引導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끝으로 本人의 榮光은 太平洋의 종업원 일동, 나아가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자들이 공동으로 나눌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短期間縮의 傾向을 뚜렷하게 엿볼 수 있다. 또한 商品의 壽命 亦是 1920年 以前에는 35年이란 긴 壽命을 維持할 수 있었으나, 1920~1940年間에는 平均 22年이고, 그後 世界第2次大戰前後는 8年, 最近에는 5年以下로 그 壽命이 各各 短縮되어가고 있다.

以上の 事實은 새로운 科學이 새로운 技術을 創造하고, 創造된 새 技術은 새 科學을 創造케 하여 科學과 技術間的 紐帶關係의 強化를 意味하는 것이며 아울러 科學技術의 基礎研究와 實際産業 또는 工業界技術과의 密接한 結合을 뜻하는 것이다.

셋째로, 오늘날의 産業構造가 보다 組

織化되고 分岐化되며, 또한 自動化되고 大型化되어 가는 社會的 時代的 條件下에 科學技術은 例를 들어 電子計算機의 데이터 處理能力과 計算能力의 向上을 가져왔으며, 制御技術의 發達로 産業分野의 完全自動化에 拍車를 加해주고 있는 등, 社會構造의 變遷에 主導的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現代科學技術의 傾向과 特徵의 몇 가지에 對하여 言及하였는 바, 科學技術의 位置와 重要性에 비추어 볼때, 앞으로 科學技術界의 人士는 科學技術人이 된 自負心과 矜持를 堅持하면서, 責任感과 進取性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苦境속에서 「학생과학」을 키웠다

진흥상수상

科學世界社代表 南 宮 浩

과학 기술의 진흥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課題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近代化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진보와 기술의 혁신이 그 先導的 役割을 담당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동안은 과학진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우리나라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온 기간이었다. 우선 과학기술처가 탄생 되었으며 과학 기술법이 제정되고 그밖에 과학 기술 진흥의 風土造成을 위한 정부 시책이 추진 되어 왔다.

그러나 모든 후진국이 한결같이 부딪치고 있는 문제로서, 선진국의 과학과

기술을 導入, 土着化하기까지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많은 진통을 겪어야하며 오랜시간을 요하게 된다.

이같은 難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多角的이며 效率的인 政策과 과학 기술인의 연구 의욕이 先行되어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전체 국민의 認識과 自覺을 바탕으로 한 분위기의 造成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10년전 나는 아직 學窓에 몸을 담고있던 과학도로서는 무모하리만큼 당돌한 出發을 했었다. 落後된 과학기술이 발전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과학 저널리즘이 形成되어야 한다는 생각 밑

에 月刊잡지 「科學世紀」를 창간 한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학 관계 서적이라던 출판계에서는 아예 손도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通念이던 때에 과학 잡지와 과학 도서를 출판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아직 과학기술처도 탄생되기 전이었고 日刊신문에도 과학부라는 것이 독립되어 있지않던 때였다.

成人 對象의 「科學世紀」外에 靑少年을 위한 과학 잡지를 세상에 내놓았다. 창의력이 왕성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므로써 장차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동기와 소양을 마련해 주려는 것이 발간 취지였다.

「科學世紀」는 뜻있는 人士들의 격려와 성원에도 불구하고 겨우 1年 6個月의 壽命을 누리고 마침내 休刊되고 말았으나 「학생과학」은 그간 남모르는 苦境을 이기고 이제 誌齡 80號의 成年으로 접어들었다.

한號 한號 지령이 쌓여갈수록, 그리고 아직 미흡한데로나마 이 잡지가 전국방방곡곡에 흩어져 꿈을 키우는 청소년들에게 읽혀지고 있음을 의식하게 될때 나는 한층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일찌기 내가 학창 시절에 해외의 잡지를 통해 과학의 세계에 경이의 눈을 땀던 체험에서 남다른 보람과 책임을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에게 주어진 영광은, 그동안 나를 도와온 동료들에게 돌리고 싶다.

